

2022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2022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CONTENTS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3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7
 - 1. 세무타파 7
 - 2. 브레인 이발소 11
 - 3. 위생사랑 18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25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28
 - 1. 위생지킴이 28
 - 2. 흥대 리더스 30
 - 3. 영양 길라잡이 33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39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 40
 - 1. 방구석 연구소 40
 - 2. 교정기 43

IV. 리딩 리더스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49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 50
 - 1. 여름방학 50
 - 2. 책! 52

V. 영어 클럽

- 영어 클럽 완료 명단 / 57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 58
 - 1. 북극곰과 함께 사는 차약이 58
 - 2. 음악영화 파헤치기 60

CONTENTS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65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66
 - 1. 열심히 하자 66
 - 2. BIPS 68
 - 3. 팡팡2요 70
 - 4. H+able 72
 - 5. RAV 74
 - 6. STEP 76

VII.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81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 86
 - 1. 토익토익공 86
 - 2. 시나공아 힘을 빌려줘 88
 - 3. Pioneer 90

VIII.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97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98
 - 1. RAV 98
 - 2. 영.실.향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100
 - 3. MGL 102
 - 4. 연구? 우리도 할 수 있어 104
 - 5. 미신아들 107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세무타파
 2. 브레인 이발소
 3. 위생사랑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세무타파 (우수)	김*영	데이터경영학과
	정*진	데이터경영학과
브레인 이발소 (우수)	안*숨	상담심리학과
	곽*정	상담심리학과
	신*진	상담심리학과
	이*경	상담심리학과
위생사랑 (우수)	임*영	식품생명공학과
	조*송	식품생명공학과
생약마스터	강*망	약학과
	김*본	약학과
	송*영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Biontist	강*용	바이오공학과
	김*정	바이오공학과
	권*표	바이오공학과
	김*연	바이오공학과
	박*희	바이오공학과
공부하멘	경*혜	바이오공학과
	김*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心과 함께	공*동	상담심리학과
	조*현	상담심리학과
	유*원	상담심리학과
	서*수	상담심리학과
서승민의 의생명모험	권*라	의생명과학과
	권*르	의생명과학과
	김*헌	의생명과학과
	박*준	의생명과학과
	조*윤	의생명과학과
	서*민	바이오공학과
	권*림	상담심리학과
신경	김*윤	상담심리학과
	조*리	상담심리학과
	김*준	상담심리학과
에이플테이커	송*한	상담심리학과
	우*웅	상담심리학과
	박*준	상담심리학과
	이*목	상담심리학과

팀명	팀원	학과
도원결의	김*연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조*진	의생명과학과
약제학 영재되기	김*연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이*민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종합비타민	김*민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스팸	김*윤	의생명과학과
	안*석	바이오공학과
	김*환	시보건의료학부
	박*훈	식품생명공학과
	윤*수	의생명과학과
우리미래경영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영	약학과
부인과 질환 정복을 위한 모성	김*서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Chemystery	김*영	약학과
	신*	약학과
	조*림	약학과
분석도 A조!	윤*빈	약학과
	김*영	약학과
	문*연	약학과
약물학은 왜 어려울까	윤*빈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현	약학과
스스(스파르타 스터디)	유*리	약학과
	민*기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박*연	바이오공학과
김*	바이오공학과	
DNA	박*희	바이오공학과
	홍*라	바이오공학과
	조*지	바이오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공부하자	박*철	의생명과학과
	안*영	의생명과학과
	유*정	의생명과학과
뉴미나우포스	박*서	바이오공학과
	최*진	SI보건의료학부
멘델리안	박*진	의생명과학과
	김*빈	의생명과학과
	홍*나	의생명과학과
작지 않은 약치들	박*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영	약학과
일화조	변*빈	의생명과학과
	이*희	식품생명공학과
차돌박이	신*훈	상담심리학과
	김*훈	상담심리학과
	박*현	상담심리학과
	이*옥	상담심리학과
	김*재	상담심리학과
약치부치	신*철	약학과
	김*솔	약학과
	김*영	약학과
	이*훈	약학과
	조*정	약학과
약치마스터	신*종	약학과
	김*솔	약학과
	문*주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월석희	안*석	바이오공학과
	김*희	바이오공학과
수요팻	안*영	식품생명공학과
	오*은	식품생명공학과
	이*영	식품생명공학과
열심히 살았으니 종강시켜조	안*운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차약 약물학 스터디	유*훈	약학과
	곽*구	약학과
	김*현	약학과
	김*희	약학과
	채*은	약학과
	최*우	약학과
DCS	윤*진	바이오공학과
	권*혜	바이오공학과
	노*주	바이오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NeCaLiCuBa	이*혁	시보건의료학부
	김*연	시보건의료학부
	송*영	시보건의료학부
병태쏙쏙	이*영	약학과
	김*우	약학과
	이*연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채*은	약학과
척척 석사 할게요	이*민	바이오공학과
	홍*우	바이오공학과
	김*민	바이오공학과
차공주들	이*신	의생명과학과
	서*리	의생명과학과
	오*영	의생명과학과
	윤*연	의생명과학과
	윤*현	의생명과학과
	한*성	의생명과학과
치약	이*현	약학과
	장*린	약학과
	이*연	약학과
	배*현	약학과
	김*윤	약학과
내가 바로 프로파일러?	이*혜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임*민	상담심리학과
화요일	이*	의생명과학과
	강*민	의생명과학과
스트릿 약사법 파이터	정*경	약학과
	이*혜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약물왕	정*지	약학과
	김*정	약학과
	정*희	약학과
	김*본	약학과
	김*정	약학과
	유*리	약학과
병을 없애조	홍*리	간호학과
	정*이	간호학과
	조*연	간호학과
Gene이어서	류*희	의생명과학과
	박*정	의생명과학과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세무타파

- 학과: 데이터경영학과
- 팀원: 김*영 정*진
- 학습과목: 세무회계
- 학습장소: 미래관 305/316호, 블루포트
- 학습 기간: 2022.10.04. ~ 2022.11.2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04	15:30 ~ 17:00	미래관 305호	1회차 스터디는 1-3주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법인세 개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임금의 계산)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며, 각자 노트를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10/11	15:30 ~ 17:00	미래관 305호	먼저 1회차 스터디에서 공부한 1-3주차 내용을 복습하였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파트가 내용도 많고 앞으로 나가는 진도의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4-7주차 학습 내용(손금의 계산, 손익의 귀속시기, 감가상각비)을 노트에 정리하고 문제 또한 풀어보면서 오답노트를 작성하였다.
10/18	08:30 ~ 09:00	카페 블루포트	시험 당일, 모든 내용을 다 복습할 수는 없었기에 시험에 나올법한 내용을 위주로 뽑아서 총정리하고, 암기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았다. 시험 범위 중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은 사업연도와 납세지 신고 및 변경에 대한 내용,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념, 임금항목과 임금불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산입 항목,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개념, 즉시상각의제, 정률법, 정액법, 시인부족액, 상각부인액에 대한 내용이다.
10/25	15:30 ~ 17:00	미래관 305호	4회차 스터디에서는 중간고사 피드백을 하고, 9주차 학습 내용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복습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문제를 풀이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틀렸던 문제들과 간과했던 개념들을 다시 짚고 넘어갔다. 그리고 이어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해 공부하였다. 공부하면서 각 기부금 유형마다 예외 사항 및 특징 등 암기할 것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암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팀원과 함께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았고, 각 기부금에 해당되는 종류들을 구별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풀어보았던 예제도 함께 풀어보았다.
11/03	15:50 ~ 17:00	미래관 316호	5회차 스터디에서는 10주차 학습 내용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5회차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4회차 때 복습했던 내용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누적 복습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4회차 스터디 내용을 복습한 이후, 5회차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접대비의 범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으며,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에 대해 정리하고 5분 동안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비교' 내용을 학습하였으며, 접대비 시분인 계산구조를 암기하였다.
11/08	15:30 ~ 17:00	미래관 305호	6회차 스터디에서는 11주차 수업 내용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총당금의 손금산입'을 복습하였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경우 규정 및 적용순서가 있어 어떠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우선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개념이기에 적용순서 규정에 대해 암기하였다. 그리고 '총당금의 손금산입'에서는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총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 나갔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5	15:30 ~ 17:00	카페 블루포트	7회차 스테디에서는 12주차 수업 내용인 '준비금의 손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복습하였다. 준비금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근거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이한 내용이 많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였다.
11/22	15:30 ~ 17:00	미래관 305호	13주차 수업 내용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를 복습하였다. 먼저 13장 내용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과세표준의 계산, 산출세액의 계산, 차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이라고 생각하여 각 계산식을 노트에 정리하고 암기하였다. 그 다음, 14장 내용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이 챕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인 사업연도 중의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노트에 정리하고 암기하였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스테디 초기에는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습 방향 및 방법이 설정된 이후에는 금방 적응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혼자 공부했으면 다소 어려웠을 과목이었는데 팀원과 함께 공부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어 주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만 학습한 것이 아닌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아가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점도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이유이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라 더 이상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다른 동기 및 후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며 아쉬움을 달래었다.

▶ 김*영

1학년 때부터 회계과목을 수강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평소 회계 과목에 흥미가 있었다. 더군다나 작년 2학기에 세법을 수강하여 세무회계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래서 친한 동기에게 교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세무회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신감과 달리 실제로 공부를 하니 어려운 내용과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내 부족한 실력으로 동기의 질문에 답해주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동기가 중간고사에서 상위 18%에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 너무 반가웠다. 비록 내 점수는 상위 31%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스테디를 하여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1등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회계만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옆에서 동기의 공부 자세를 지켜보며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 솔직히 1학년 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자만심이 이번 학기에 공부를 덜 하게 만든 것 같았고, 그 결과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기는 성적이 좋았는데도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동기의 겸손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교과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준 동기에게 고맙다.

교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

▶ 정*진

항상 전공과목 중에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 “회계”였다. 생소한 용어와 계산식으로 회계는 언제나 어려웠고, 학습 방법도 잘 알지 못하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회계는 당연히 가장 싫은 과목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세무회계”를 시작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었다. 그러던 중 팀원의 권유를 통해 교과 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회계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였다.

막상 스터디를 시작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어찌면 내가 팀원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짐은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스터디 활동에 열심히 임하였다. 혼자 할 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었는데, 팀원이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다 보니 전혀 들어오지 않던 개념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개념을 이해하니 점차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늘어나게 되었고, 문제 푸는 속도가 붙으니, 약간의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 또,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팀원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포기하는 문제들도 거의 없어졌다.

특히 스터디의 효과를 체감한 것은 중간고사 전 교수님께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해주실 때였다. 여태껏 들어왔던 회계 과목들은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터디 활동으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습했더니 기출 문제 풀이가 이해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심지어 기대하지 않았던 중간고사 성적이 상위 18%로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어 더 놀라웠다.

문득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교과 스터디의 효과를 깨달은 것이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회계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졸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만족하며 남은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바람이다.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준 팀원에게 감사하며 다른 동기나 후배들에게도 학습법 소모임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팀명 : 브레인 이발소

- 학과: 상담심리학과
- 팀원: 안*숨 곽*정 신*진 이*경
- 학습과목: 신경심리학
- 학습장소: 교내 학습이 가능한 장소, Google Meet
- 학습 기간: 2022.11.01. ~ 2022.12.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02	16:00 ~ 18:00	교내	<p>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각자 바라는 목표를 세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간고사 문제들을 돌아보며 어려웠던 부분을 나눴고 도파민성 시스템에 관해 기술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토의하며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 또한 뇌 구조물의 명칭을 영어로 기술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에 의해 다음 소모임 때 용어들을 모은 단어장을 제작하기로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후 신경심리학을 공부하며 가장 근본이 되는 뇌 구조 쌓기를 직접 해보았다. 완성된 뇌 구조물이 그려진 종이를 오려 하나씩 쌓아가며 뇌 구조를 다시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Build a brain을 복습하였다.</p>
11/05	21:00 ~ 23:00	Google Meet	<p>뉴런의 구조와 기능, 시냅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런은 세포체와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돌기들에는 가지돌기와 축삭이 있으며 자극을 수용하고 형성,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극의 수용은 가지돌기와 세포막이, 자극의 형성은 축삭의 시작분절에서, 자극의 전달은 축삭이 한다는 기능에 대한 학습하였다. 뉴런을 어떻게 형태학적, 형태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론적 개념을 학습하였고 조원들이 각자 조사한 뉴런의 구조물에 대해 강의식으로 한사람이 나머지 팀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자 최소 하나씩의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뉴런의 구조물인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 종말단추 등의 위치뿐만 아니라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학습하였다. 팀원 질문에 답변서 모르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각자 전공서적을 펼쳐놓고 기</p>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p>록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알아가는 과정으로 서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궁금증을 해소했다.</p>
11/09	16:00 ~ 18:00	교내	<p>시냅스의 안정전위와 활동전위에 대해 학습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퀴즈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모임 전 2인씩 파트를 맡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내 오기로 약속을 해두었다. 자신이 풀 문제에 대해 약 10분 정도 학습을 한 뒤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롤링페이퍼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며 각자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학습했다. 안정전위가 어떤 것인지,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세포막의 양쪽은 어떤 농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때 그 농도가 변화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제들을 풀어보며 정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 한명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팀원들에게 알려주며 자기 자신도 학습이 되고, 팀원들도 그 설명을 들으며 학습을 하며 함께 효과적인 학습을 하였다. 이렇게 모두 학습을 한 후 이번 소모임을 마무리하며 안정전위와 활동전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외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 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팀원들과 함께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습만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할 수 있도록 했다.</p>
11/12	21:00 ~ 23:00	Google Meet	<p>소모임을 하기 이전에 학습관리시스템에 있는 수업 영상으로 개인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시작했다. 개인학습 도중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 즉 추가로 학습이 필요한 곳에는 미리 표시를 해두고, 이후 비대면으로 팀원들과 만났을 때 각자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영문으로 표기된 신경관'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문에 관해서는 각종 서치 서비스와 해당 수업의 교재인 전공서적을 이용하여 의문을 해소하였다. PPT 강의안에서 나온 Prochordal plate (척삭앞판), Notochordal plate (척삭판), Primitive Knot(원시매듭)과 같이 영문 표기된 명칭을 한국어로 바꿔 단어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중추신경계 발생과정을 단순명료하게 정리하며 숙지하기 위해 팀원 모두는</p>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발생과정의 순서를 나열한 다음 곳곳에 빈칸을 설치하여 서로에게 물어볼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목록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했다.
11/16	16:00 ~ 18:00	교내	시각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시각 경로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그림을 직접 그려보며 학습해 보기로 하였다.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끼리 시각 경로를 그려보며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그려보는 것을 선택하였다. 시신경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직접 그려봄으로써 그저 보는 것보다 학습이 잘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후, 그 그림에 빈칸을 뚫어 구조에 이름을 넣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망막부터 시작하여 시신경, 시신경 교차, 시상 등의 이름을 넣어보며 시각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빈칸에 이름을 넣어보며 암기하는 시간 또한 가져보았다. 망막을 보며, 망막의 구조와 함께 이름을 익히기 위해 단어 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세포들의 이름을 적어보며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읽어보며 함께 학습하였다. 막대 세포, 원뿔 세포, 수평 세포, 양극 세포, 무축삭 세포에 대해 학습하였다. 이 세포들의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적어보며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습을 하였다. 이렇게 학습을 약 30분 정도 해보고, 팀원들과 함께 단어 퀴즈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만든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한 명씩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내며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해 경쟁을 통해 오래, 그리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승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보상을 받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외우며 학습하였다.
11/21	21:00 ~ 23:00	Google Meet	청각 신경계의 경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강의안을 토대로 청각 신경계 경로 그림을 보며 학습했다. 청각신경계에는 달팽이신경, 와우, 안뜰신경, 전정, 평형 등이 있으며 달팽이관의 위쪽에 반고리관이 3개의 형태로 있음을 학습할 수 있었다. 청각정보가 나선신경절을 거쳐 각각 4개의 선들이 어느 곳으로 뻗어나가는지 학습하였고 그 위로 뇌실을 지나 청각정보가 중뇌까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청각 경로 그림을 보고 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p>서 경로의 정확한 흐름을 학습하였고 이후 그림을 보지 않고 흰 종이나 각자의 태블릿에 청각경로를 그려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선신경절을 거쳐 청각정보가 이동하는 방식 이외에 안뜰 신경절을 통해 이동하는 경로도 함께 학습하였는데, 이때 안뜰핵의 존재와 안뜰핵에서 시냅스를 통해 정보가 수용기로 이동하는 과정은 4개의 경로 중 3개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신경핵을 향해 나아가는 청각 정보의 경로, 시상을 거쳐 대뇌겉질로 나아가는 청각 정보의 경로, 소뇌를 향해 나아가는 청각정보의 경로 등 다양하게 나뉘는 경로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각정보 시스템의 전체적인 경로와 흐름을 그림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직접 그려보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학습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 기말고사 출제 범위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뽑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경심리학 과목 특성상 모든 시험문제가 기술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할 내용들을 말로 조원들에게 설명해 보는 형식의 공부 방법을 통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학습내용으로는 활동전위와 안정전위의 과정, 중추신경계의 발생 과정 중 뇌가 3개로 분할된 후 다시 5개로 분절되는 과정이 있었다.</p>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11월 21일을 마지막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된 학습 소모임을 모두 끝마쳤다. 약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스터디는 필시 아쉬운 점과 자랑스러운 점이 공존하겠으나, 모든 것을 떠나 이 경험이 팀원 모두에게 여러 방면으로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장담한다.

사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한다는 것은 웬만큼의 집중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이다. 만나자면 안부부터 시작해 사소한 사담을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에 대해 염려하고, 고민했다. 이왕 일을 시작한 김에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막상 공부를 위해 만나고 나면 펴놓은 책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었다. 누군가는 적당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작은 활동을 기회로, 우리의 공

부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공부도 할 겸, 만나면 반가움부터 앞서서 우리에게 딱 맞는 단체공부법을 찾아보자는 목표였다.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만큼, 팀원들은 매 회차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목표하는 만큼의 자료를 가져왔다. '시험을 잘 보는 걸 목표로 하자.' 당연한 목표였기에, 우리는 무언가 더 추가할 만한 것이 없는지 생각했다.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적은 양이라도 확실히 해내자.' 그것이 우리가 처음 내세운, 작은 약속이었다.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만 잡아먹을 바에는 적은 양을 깊게 공부하자는 일종의 다짐이었다. 그렇게 각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미리 계획해 두었던 스터디 플랜을 따라가면, 다 못해냈다는 죄책감보다 훨씬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팀원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매 회차의 코트머리에서 이번 회기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관해 의논하는 것이다. 스터디가 끝난 이후에도 부러 시간을 내어 회의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효율적인 단체 공부법을 찾겠다는 하나의 목표와 팀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다음 회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습 소모임을 이어 나가는 활동은 바빴지만, 동시에 서로의 공부 방식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방식이기도 했다. 실제로 회차마다 스터디 진행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하여 의논한 우리 회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좋았던 부분은 채택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수정하고, 반려했던 의견을 또다시 꺼내와 적용해 보기도 하는 작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활동이 우리에게 단순히 함께 모여 학습한다는 일차적인 성과 그 이상으로 자신의 공부 방해 요소 알기, 시간 분배 연습, 의견 취합 및 조율 등 다양하고 색다른, 의욕 넘치는 경험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던 것 같다. 마지막 회차에 각자 소감들을 나눌 때는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을 남겼다. 함께라서 집중하지 못할 거란 우려를,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일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여, 학구열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비록 학습법 소모임은 끝났지만, 이대로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도 만족스럽고 아쉬운 시간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이 스터디를 유지하고, 여러 실험과 도전을 반복하며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킬 생각이다.

▶곽*정

신경심리학은 공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가 많이 생기는 과목이었습니다. 흥미가 많이 생기는 과목인 만큼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고 의문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나누고 같이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혼자 할 때는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팀원들의 생각과 의문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만 해도 시험을 잘 보자는 목적이 있었지만, 소모임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시험 때문이 아닌 정말로 신경심리학이라는 과목에 재미를 느끼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할 때 보다 여럿이서 하니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부할 수 있어 더욱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퀴즈도 내보고 전공서적도 같이 찾아보고 한 주제에 관해서 토론도 하는 등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신*진

학교에서 하는 소모임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번 소모임은 줌으로 하는 시간이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이번 소모임은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하면서 비로소 소모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면으로 친구들과 만나 함께 공부를 하니 좀 더 학습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공부를 해결하고 학습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공부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함께 퀴즈를 내고 맞추고 함께 학습을 하며 얻어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번 소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모임에서는 신경심리학을 주제로 소모임을 하였는데, 좋은 주제를 선정한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이번 소모임의 주제를 신경심리학으로 선정하여 같이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모임의 목표가 시험성적 향상이었는데, 그러한 목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소모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숨

신경심리학 과목을 주제로 소모임을 진행한다는 것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과목이었고 그래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확실히 이번 소모임을 통해 공부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게 생각했던 개념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니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제가 이번 소모임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저희 모임명의 취지와 맞게 뇌의 구조물, 망막의 구조, 청각 시스템의 경로 등 이론을 이해하기위해 직접 그려보고 뇌를 조각조각 나누어 파헤쳐 보는 과정이 있었기에 더 의미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하지 못할 활동들을 하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수업 시간의 제한된 시간과 많은 인원수의 제약으로 수업 내에서는 하지 못했던 신경심리에 대한 심화학습을 이룰 수 있던 시간이었기에 더 즐거웠습니다. 비록 소모임의 첫 시간 우리의 주된 목표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이라고 정해두었으나 시험 그 이상의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경

신경심리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마주했을 때, 사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생명과학과는 담을 쌓아온 저로서는 뇌를 하나하나 쪼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우리 눈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내심 부담스럽고 무서웠던 까닭입니다. 인체 해부학적 지식이 잔뜩 압축되어있는 전공책 또한 저를 겁먹게 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라고 한들, 적나라하게 묘사된 단면도를 보고 있자면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수십번을 책을 펴고 덮고를 반복하며, 떠올린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러한 고민을 친구들에게 토로했더니 의외로 다른 친구들도 이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네 사람이 모여 공부 한번 해보자는 그런 포부로 시작된 것이 이 소모임이었습니다.

며칠을 간격으로 함께 모여 스터디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하나로 모아 빈 시간을 만들어 내야 했고, 도통 집중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합의 하에 적당한 휴식을 취해보기도 하고, 서로 공부 중 고쳐야 할 부분이나 잘한 부분에 관해 피드백도 나누며 스스로의 습관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적인 노력 덕분인지, 저는 이 스터디에서 한 활동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공부 분위기가 형성되니 집중을 보다 더 오래 할 수 있어 스스로도 뿌듯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공부 내용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러 방식으로 공부를 도전해 보는 경험이 신경심리학이라는 과목의 두려움과 공부는 마냥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부수어 준 계기가 된 것 같아 귀중한 경험으로 제 안에 남을 것 같습니다.

팀명 : 위생사랑

- 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임*영 조*송
- 학습과목: 식품독성학
- 학습장소: 대면
- 학습 기간: 2022.10.01. ~ 2022.11.2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5	16:00 ~ 18:00	대면	<p>‘식품독성학’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의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p> <p>독성은 식품의 적절하지 않은 보관 및 보존 방법 또는 환경적 위생에 따라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노출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따라서 위생사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요약본을 만들게 되었다.</p>
11/01	15:00 ~ 17:00	대면	<p>‘공중보건학’ part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암기하기 힘든 부분을 색이 있는 펜으로 체크하고, ‘식품독성학’ 강의 내용으로 보완하기 힘든 내용을 소모임 활동 시간에 체크된 부분만 팀원과 질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p> <p>팀원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답을 찾아주었고,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심층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p>
11/08	15:00 ~ 17:00	대면	<p>위생곤충학’은 먼저, 교수님이 함께 풀이 해주셨던 문제를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 풀이를 진행할 때는 먼저, 답을 확인하지 않고 풀이했을 때 오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오답 노트를 제작하여 정리하였고, 오답 된 문제와 연관된 내용을 문제 옆에 작성함으로써 두 번의 오답을 방지하였다.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지 빠르게 점검할 수 있었고, 여러 번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률이 0%에 가까운 문제</p>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들은 제외하며 어렵거나 헛갈리는 문제를 위주로 학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11/15	15:00 ~ 17:00	대면	실기는 하나의 기기여도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집만 참고하기보다는 함께 구매해 다른 학원의 문제집도 풀어보았다. 또한, 다른 사진은 없는지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며, 네이버 위생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여러 그림을 참고하였다. 특히 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더욱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해보기 위하여 최종모의고사를 풀었다. 동시에 타이머를 재고 문제를 품으로써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푸는 듯이 긴장한 상태에서 학습하였다.
11/22	15:00 ~ 17:00	대면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A4용지에 각 식중독의 특징 중 꼭 암기해야 할 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식중독균 중 세균성 식중독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캄필로박터 식중독, 역시니아 식중독, 리스테리아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식중독, 바실러스 식중독이 있다. 이렇게 백지에 각 식중독균의 특징을 정리하니깐 머릿속에서도 정말 정리가 잘되고 훨씬 잘 외워졌다. 이에 더불어 백지 학습을 통해 백지에 외운 것을 모두 적어 어느 부분이 덜 공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1/29	16:00 ~ 18:00	대면	법률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부담 없이 학습하였고, 그중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암기하였다. 법령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찾아보았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습법으로 인해 응용문제와 심화 문제도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다. 또한, 서로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바꿔서 풀어보며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고, 여기서 틀린 문제를 서로 알려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잘 이해하였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소모임 활동은 본인이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 공부 진도가 느리지는 않은지, 공부 방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하다. 그러나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서로의 공부 방법과 학습 자료를 공유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위생사 시험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데, 서로 갖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니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에 처음 경험해 보는 사람들,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 해당 공부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 등에게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제도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사실 지금까지 원래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모임 학습법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모임 학습법을 통해 효과적인 공부 방법,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깨닫고 성공 경험을 쌓아서 향후에 있는 공부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소모임 학습법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 임*영

사실 작년에 위생사 시험을 응시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 물론 단기간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 나에게겐 해당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작년에는 매우 촉박하게 시험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 학습법 소모임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학습법 소모임 활동은 같은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 같다.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해보고, 공부하기 싫어 늘어질 때는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고, 불안하고 다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송이가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줘서 멘탈을 잡고 힘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어쩌면 시험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 자기주도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진도가 밀리고 해야 할 공부를 제시간에 끝내기가 힘들어하는데,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공부 진도를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 다행히 시험 전에 넉넉하게 진도를 끝내고, 작년엔 풀지조차 못했던 최종 모의고사도 모두 확인하고 갈 수 있었다. 덕분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이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조*송

2학기부터 시작했던 학습법 소모임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다. 공동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함께 계획 및 학습하고 시험을 보면서 팀원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값졌고, 다 같이 설정한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자신감과 행복감, 부딪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번 활동 때 했던 공부 방법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의 모든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됨에 있어 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학습 스타일이 유사한 팀원과 함께 한 이번 학습법 소모임은 함께 학습할 강의실이나 장소를 찾기에 매우 수월하였고, 어려움 없이 원활히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위 소모임 활동을 다른 학부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물론 혼자 학습을 하는 것도 자신의 공부 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 혹은 목표를 설정하여 도달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또, 시험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 나아가는 학습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나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위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나와 꼭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위생지킴이
 2. 흥데 리더스
 3. 영양 길라잡이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위생지킴이 (우수)	이*빈	식품생명공학과
	송*지	식품생명공학과
흥데 리더스 (우수)	장*수	데이터경영학과
	김*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영양 길라잡이 (우수)	최*지	스포츠의학과
	이*건	스포츠의학과
	김*완	스포츠의학과
	김*현	스포츠의학과
	김*기	스포츠의학과
	조*우	스포츠의학과
VIDA	강*연	바이오공학과
	김*연	바이오공학과
	황*진	바이오공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이*희	바이오공학과
	이*우	바이오공학과
Snap Toeic	김*림	식품생명공학과
	하*수	의생명과학과
	신*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유*	간호학과
	이*리	식품생명공학과
토맛토익	김*현	간호학과
	김*민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사일회계	김*리	데이터경영학과
	김*수	데이터경영학과
	박*서	데이터경영학과
	한*민	데이터경영학과
위생사 한번으로 끝내기	노*현	식품생명공학과
	김*원	식품생명공학과
	정*목	식품생명공학과
	임*한	식품생명공학과
	전*민	식품생명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What's up? Mammm	박*연	바이오공학과
	강*연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최*영	바이오공학과
	장*휘	스포츠의학과
	인*은	바이오공학과
Sally and Stella	박*원	상담심리학과
	김*성	상담심리학과
광개토의왕	박*정	의생명과학과
	류*희	의생명과학과
STEADY	변*현	상담심리학과
	이*련	시보건의료학부
	박*현	시보건의료학부
취업행 토익열차	서*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희	약학과
	박*현	약학과
	장*영	약학과
컴활 아카데미의	송*원	데이터경영학과
	김*하	미술치료학과
	박*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임*린	미술치료학과
티모태	신*채	시보건의료학부
	김*원	시보건의료학부
	안*빈	시보건의료학부
	유*흔	시보건의료학부
대모임	신*경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졸업까지 단 한걸음	양*영	의생명과학과
	이*은	의생명과학과
	윤*정	의생명과학과
차이브	이*민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다다	이*혁	미술치료학과
	안*지	미술치료학과
	이*린	미술치료학과
	장*수	미술치료학과
마지막 토익	이*훈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김*솔	약학과
	조*정	약학과
안전은 한끗CHA이	이*지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원	약학과
	정*희	약학과
지검상담사2	임*민	상담심리학과
	박*원	상담심리학과
	이*현	상담심리학과
	이*혜	상담심리학과
놓지 않을게	정*수	미술치료학과
	임*숨	미술치료학과
3월 30일	조*서	스포츠의학과
	김*희	상담심리학과
린네의 학명 라틴어	한*훈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이*지	약학과
토익열차990	이*연	약학과
	이*우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조*정	약학과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위생지킴이

- 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이*빈 송*지
- 학습주제: 위생사 공중보건학 공부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0.26. ~ 2022.11.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6	23:00 ~ 25:00	ZOOM	공중보건학 개념 읽고 스터디 참여, 공중보건학 단원 문제 풀기, 오답 정리/분석
11/01	19:30 ~ 21:50	ZOOM	환경위생학 개념 읽고 참여, 문제 풀기, 오답 정리/분석
11/03	22:40 ~ 24:50	ZOOM	식품위생학 개념 읽고 스터디 참여, 문제 풀기 및 오답 정리/분석
11/12	22:10 ~ 24:20	ZOOM	위생관계법령 공부, 필수 암기 부분 체크 (해당 법령 권한, 기록 보관 연도 등)
11/15	22:20 ~ 24:30	ZOOM	위생곤충학 공부, 위생사 시험 전 마지막 복습/모의고사 문제 풀기/ 실기 어려운 부분 확인, 최종 정리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면 더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지막 학기이다 보니 학교에 오는 날과 시간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전공 관련 시험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서로 의지하고 보충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공부 외에 일들이 많아 약 1달을 기준으로 필기와 실기 두 가지 모두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학습법 소모임이 없었다면 시험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송*지

처음에는 위생사 공부를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다행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같이 공부하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취약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보완해 가며 공부하였고, 줌 스터디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국가고시라 걱정과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힘들거나 지칠 때도 서로 의지하며 목표를 위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위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이*빈

위생사 시험 범위가 넓기도 하였고 전공 관련 자격증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에 불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마지막 학기인 만큼 이번 기회에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컸지만 혼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하나씩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팀명 : 흥데 리더스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데이터경영학과
- 팀원: 김*지 장*수
- 학습주제: CS리더스 관리사 공부
- 학습장소: 도서관 북카페, 미래관 311호, 미래라운지
- 학습 기간: 2022.10.26. ~ 2022.11.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6	12:00 ~ 14:00	도서관 북카페	‘에듀월 CS리더스 관리사 1주 끝장’ 교재를 통해 제1과목 CS개론에서 고객만족관리, 고객만족경영(CSM),고객(소비자)행동 총 3개의 챕터를 학습하였다. 고객만족에 대한 학자의 정의, 올리버 기대불일치이론, 애덤스 공정성 이론 등을 학습하고, 챕터별 빈출 문제를 풀면서 이차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03	12:00 ~ 14:00	미래관 3층 테이블	제2과목 CS전략론에서는 서비스와 고객 만족으로 나눠서 학습하였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마케팅의 정의와 분석, 전략 단계 파악,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분류, 측정, 모형, 품질 차원, 다양한 모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평가 조사, 컨설팅, 혁신 전략에 대해 학습하였다. 고객만족도와 관련한 측정 3원칙, 고객 만족 지수 측정 방법, 측정 모형, 고객 심리의 응용을 통해 학습하였다.
11/09	16:00 ~ 18:00	미래관 311호	제3과목 CS실무론에서 예절과 에티켓, 고객상담, 전화 서비스 총 3개의 챕터를 학습하였다. 고객만족을 위한 화법 종류(쿠션/레이어드/신뢰 화법 등),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초두/맥락 효과 등)를 학습하고, 기출 복원 문제를 풀었다. 이번 회차에서는 목표로 한 챕터를 각자 예습한 후 만나서 복습하고, 문제 풀이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1	12:00 ~ 14:00	미래관 3층 테이블	제1과목부터 3과목까지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출 되는 문제 내용으로 실제 시험과 같이 문제를 풀었다. 1과목(고객만족 관리 관련해 다양한 이론(귀인 이론, 기대 불일치 이론), 슈매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성, 대기시간, 고객 만족 경험, 분류 고객별 특징, 고객관계관리의 분류), 2과목(서비스 기법, 고객의 소리, 미스터리 쇼핑, MOT 사이클 차트 분석, 마케팅 전략(STP, SWOT 등), 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수익 체인 등 CS 전략), 3과목(이미지 형성 과정, 첫인상 관련 효과, 메라비언 법칙, 절하는 예절, 시간과 상황에 따른 올바른 인사 방법, 코치의 역할과 특징, 불평 고객 유형, 클레임, 전화 서비스(콜센터), 프레젠테이션,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문제 풀이를 진행했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일정 시간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학기 중에 바쁘다 보니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동기와 주기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서로의 학습량도 공유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큰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최소 20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그날마다 학습한 내용에 따라 쓸 만한 내용이 상이하다 보니 부담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학생 편의에 최 대한 맞춰서 진행해 주신다는 점, 얻는 성과에 비례했을 때는 괜찮은 진행방법이었다고 본다.

▶김*지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수업과 연관된 자격증 취득을 진행했다. 혼자서 소모임 없이 진행했다면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면 내일부터 준비해야지 등 미루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소모임 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 미루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다. 서로 모르는 부분도 알려주고 서로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다.

특히 이번 소모임 목표인 자격증 취득을 달성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다. 약 1달 이내로 소모임 활동을 타이트하게 진행하면서 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임했다. 이번 소모임이 두 번째인데 지난 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장*수

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해 학기 중에 자격증 시험을 도전할 수 있었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재응시하여 취득하고자 한다.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응원하며 혼자였다면 끝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앞으로도 스터디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학우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팀명 : 영양 길라잡이

- 학부: 스포츠의학과
- 팀원: 최*지 이*건 김*완 김*현 김*기 조*우
- 학습주제: 스포츠영양코치(NSCA) 자격시험 대비 학습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9.30. ~ 2022.11.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9/30	23:00 ~ 00:55	ZOOM	NSCA 영양 코치 시험 특성상 측정값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변화가 빈출 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함께 공유. 탄수화물 부분에서는 체내 흡수 과정에서 확산과 능동 수송을 분류하는 방법 논의.
10/08	23:00 ~ 00:26	ZOOM	2차 활동 범위는 비타민과 무기질로 선정. 각 단원 별 담당자를 정하여 기출 포인트와 빈출 내용을 짚어주고, 오답 문제에 관한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10/22	23:00 ~ 00:00	ZOOM	물, 전해질, 체액균형 단원 연습 문제집 기출을 풀면서 관련 논문 공유.
11/11	21:00 ~ 00:00	ZOOM	1부 90분은 대비 연습 문제집을 다시 풀어보기, 2부 90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길라잡이 책으로 다시 이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 시험 대비 진행.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혼자 시도했다면 많은 양과 많은 문제에 버거웠을 수 있었겠지만,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며 부원들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관련 내용을 이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재에 나온 내용 외에 요즘 화두가 되는 학계 트렌드들을 공유하고 논문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터디 그룹이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더 좋은 시너지를 낸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응시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내용들을 함께 준비하여 놓치는 것 없이 수월하게 준비하였으며, 개인의 결과는 다 달랐지만, 개개인에게 영양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김*완

영양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수업 이외에 같이 공부를 해서 NSCA 영양코치 자격증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스터디를 시작했을 때는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나가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다뤘다면, 일주일마다 한 단원씩 나가다 보니 수업 진도를 앞질렀고, 스터디에서 공부를 하고 수업 때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재미없던 영양학 수업 시간도 아는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 더 흥미가 돋고 이해가 쉽고, 집중이 잘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형님, 친구들처럼 시험을 이번에 같이 응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공부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 좀 더 공부를 추가로 한 다음, 다음번에 있을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목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정말 재밌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현

처음에는 전공 수업 중 운동영양학을 수강하는 동기들, 선배와 같이 공부하고자 만들었던 모임이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고 영양학에 대해 알아보면서 'NSCA 스포츠 영양코치'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었다. 전공 수업과 자격증 준비를 함께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욱 많아 공부의 효과가 배가 되었다. 덕분에 전공수업 중간고사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 준비도 수월했던 것 같다.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나에게는 너무 유익했던 소모임 활동이었다. 무엇보다 공부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논의했던 우리 팀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목표였을 것이다. 추후에도 이 팀원들과 함께 다른 전공과목을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건

NSCA Korea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2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양학을 공부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려 했지만, 시험을 보기 위한 돈을 보니 가볍게 임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 연습문제집 교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쉽지 않겠다.'였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선을 넘은 내용과 양들을 보고 살짝 후회하기도 했지만, 스터디원들과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맞혀보고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항상 혼자 공부해 왔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파트를 맡아서 공부해서 질문을 받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어떤 질문이 올지 생각하며 공부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어 시험공부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공부해서 정말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김*기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단 구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운동 영양학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운동영양학을 같이 듣는 학우 중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우들이 있었다. 영양에 관해 공부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여 소모임을 시작했다. Nsca 스포츠 영양코치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한 주에 2~3챕터씩 개념학습과 연습문제를 풀이하였는데, 내가 처음 목표로 했던 보디빌딩식 식단 구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자격시험에는 불합격하였지만 근소한 차이였기에 내년 시험에서는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우

스포츠 영양코치 lv 2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학기 중에 배우는 운동 영양학 내용과 스포츠 현장 혹은 운동 현장에 적용되는 영양학적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준비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 혼자였다면 중간중간 놓아버렸을 수도 있었지만, 소모임으로 동기와 선배님과 함께 토의하며 공부해 나가니 뜻깊은 활동들이었습니다!!

▶최*지

처음 시작한 공부를 미루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간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번 스터디들 통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이해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스터디의 결과가 뛰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영양학에 접근해야 할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이 많아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1. 방구석 연구소
 2. 교정기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방구석 연구소 (우수)	김*지	간호학과
	김*현	간호학과
	김*서	간호학과
교정기 (우수)	정*철	스포츠의학과
	김*현	스포츠의학과
에블 준다	김*정	바이오공학과
	강*용	바이오공학과
심봤다	김*경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희	약학과
Nucle-Us	이*민	약학과
	윤*연	의생명과학과
	이*교	의생명과학과
	양*정	의생명과학과
	하*연	의생명과학과
	지*윤	의생명과학과
	차*진	의생명과학과
귀엽조예브조사랑스럽조	윤*현	의생명과학과
	최*희	의생명과학과
	한*희	의생명과학과
	권*라	의생명과학과
	강*민	의생명과학과
	김*연	의생명과학과
약치좌	이*원	약학과
	정*희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지	약학과
미국에서 파티하는 벌은, 프롬비	이*은	의생명과학과
	장*희	의생명과학과
	이*민	의생명과학과
	조*진	의생명과학과
	김*주	의생명과학과
	정*한	의생명과학과
아장아장	신*경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방구석 연구소

- 학과: 의생명과학과
- 튜터: 김*지
- 튜티: 김*현 김*서
- 학습과목: 간호연구
- 학습장소: 분당
- 학습 기간: 2022.11.04. ~ 2022.11.2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04	19:00 ~ 21:00	분당	간호연구의 정의, 역사, 필요성, 간호사의 역할과 근거 기반 간호의 정의, 근거 생성, 과학적 연구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주제의 문제 2개씩 풀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한다.
11/11	19:00 ~ 21:00	분당	양적, 질적 연구의 가정, 특성, 목적 및 한계와 연구 윤리 강령, 규정 제정에 미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주제의 문제 2개씩 풀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한다.
11/18	19:00 ~ 21:00	분당	연구의 개념, 연구 변수, 진행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주제의 문제 2개씩 풀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한다.
11/25	19:00 ~ 21:00	분당	연구의 준비 단계 및 설계, 자료수집, 표집,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에 대해 이해하고 최근 5년 내 논문을 1개 선정하여 적용해 본 뒤, 해당 주제의 문제 2개씩 풀어 서로 풀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조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한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수업 후 자기주도 학습으로 복습하는 방식도 좋지만 그러던 중 헛갈리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교수님께 여쭙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쭙보기 전에 혼자서 교재나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해해 보려 하지만 동기끼리 모여서 소모임 활동을 하며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알려주는 사람은 이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알려주기 때문에 확실히 인식될 수 있고 이해하는 사람은 빨리 해소할 수 있기에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모임을 할 때 단순히 문제를 풀고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조원 모두 헛갈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또는 틀렸을 경우 왜 틀렸는지 확인하며 문제뿐만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에 머릿속에 개요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주차 별로 내용을 별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주차 간 내용이 이어져서 공부하는 것이므로 복습을 하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단계에서는 마지막 학기로 논문작성을 해야 하기에 조원들과 함께 읽어 보면서 공부하였으며 다양한 논문을 통해 대입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을 듣고 조원들 각자 공부를 진행한 후 어려운 부분들을 필기 한 후 공유하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필기를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를 수 있기에 생각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수업과 종합시험, 실험을 병행해야 해서 다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였고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과목을 계속 공부해야 했지만,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소모임을 통한 스터디가 4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으며 강의를 통한 일회성 학습이 아닌 예습·복습을 하여 조원들과 함께 공부한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다 보니 혼자서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모임을 통해 학습하면서 내가 좀 더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동기들과 함께하기에 공부할 때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학습 소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연결이 잘 안되어 중간중간 끊길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동기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교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여서 이제 동기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의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김*지

이전까지 간호학 소모임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 배우는 과목으로 특히 국시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이어서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개념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과목이어서 자체적으

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볼 수 있었고 할애된 공부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응용하여 이 과목에 적용해 공부하였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같 다보니 활용된 개념은 똑같아도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구 과목이 생소해서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었는데 소모임을 통해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니 서로 확인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서

비대면 강의여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어야 했는데 혼자 했으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어렵게 공부를 함께하니 서로 설명을 해주고 잘못 이해했던 부분들을 고쳐주면서 학습하여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개념들을 활용하여 논문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논문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명 : 교정기

- 학과: 스포츠의학과
- 튜터: 정*철
- 튜티: 김*현
- 학습과목: 교정운동
- 학습장소: 과학관, 해룡학사, 도서관 그룹토의실2
- 학습 기간: 2022.10.31. ~ 2022.11.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31	19:00 ~ 21:00	과학관	학습 방법은 수업 자료 pdf를 튜티에게 전송하고 수업 때 필기한 내용을 알려줬다. 알려주면서 의논할 점이 발생하면 서로의 생각을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론 전달을 마치고 실습을 튜터가 먼저 튜티에게 진행한 후 튜티도 튜티에게 실습을 진행해 본다. 학습 내용은 근 길이 검사(MLT)는 약 10개의 근육으로 목(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SCM.), 대흉근(하부, 중부, 상부), 소흉근, 광배근, 이상근, 햄스트링, 토마스 테스트(대퇴직근, TFL, 장요근), 오버테스트(TFL 단축 판단)를 진행하고, 도수근력검사는 약 12개의 검사로 목(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SCM.), 대흉근(하부, 중부, 상부), 소흉근, 광배근, 이상근, 햄스트링, 토마스 테스트(대퇴직근, TFL, 장요근), 오버테스트(TFL 단축 판단)를 진행했다.
11/07	19:00 ~ 21:00	해룡학사	학습 방법은 질문을 통해 튜티의 뇌를 자극하였고 이를 통해 기억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목표였다. 학습 내용은 후만증, 전만증, 편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스트레칭 하고 강화해야 하는 근육을 알아봤다. 후만증은 경우 폼롤러를 통해 근육을 더 이완할 수 있다. 그리고 흰 다리의 경우 X다리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다. X다리 시 약화하고 짧아진 근육들도 알아봤다.
11/14	19:00 ~ 21:00	과학관	〈학습 방법〉 O다리의 경우 수술과 비수술의 기준이 몇 cm냐고 질문하여 5cm 대답이 나오기를 유도한다.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p>craig's test는 IR ROM을 확인한다. 테스트 시 ROM이 안 나오면 앞비틀림으로 인해 ER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질문에 답변을 함.</p> <p><학습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다리 기준 2. back knee의 영향을 받는 근육 3. 스크류 홈 4. 경사각의 각도 7. 대퇴 비틀림각 8. 앞비틀림과 뒤비틀림 9. Craig's test
11/28	18:30 ~ 20:30	도서관 그룹 토의실2	<p><학습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적 측만증 vs 특발성 측만증 2. Risser Sign 성장판 척도 3. Adam's test 4. Gait Analysis 5. x-ray 분석 <p><학습 방법></p> <p>질문을 하였고 배운 내용을 튜티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p>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튜티를 알려주면서 나도 다시 공부하게 되었다. 만약 튜티가 없었으면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덕분에 고정적으로 월요일 저녁마다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다. 그리고 지금은 1대 1로 진행하였지만 튜티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있으면 더 많은 인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설명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진짜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후배는 수업 내용을 요약해서 들을 수 있기에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보통 혼자 하는 시간이 많은데 같이해서 더 힘이 되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정*철

말로 설명할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튜티에게 알려주면서 나도 공부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튜터가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너무 유익했다. 말하며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억에 잘 남지 않았을 것이다. 방학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거 같고, 나중에 교육을 누군가에게 하는 날이 오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김*현

어려울 것만 같았던 소모임이었는데 튜터가 알기 쉽게 지금 제 지식수준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어서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실습을 해주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 기억하기 쉬웠고 그 덕분에 매주 소모임 시간마다 새로운 내용들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3학년 것을 미리 예습 한 거지만 지금 듣고 있는 수업에도 조금씩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수업을 들을 때마다 느꼈고 그래서 지금의 수업도 더 수월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소모임 튜터로서 튜티를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IV. 리딩 리더스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1. 여름방학
 2. 책!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여름방학 (우수)	박*정	약학과
	유*리	약학과
	안*영	약학과
책! (우수)	이*은	의생명과학과
	양*영	의생명과학과
	윤*정	의생명과학과
차대추리반	김*영	약학과
	김*솔	약학과
	신*철	약학과
	이*훈	약학과
	조*정	약학과
Bookie On&On	김*운	약학과
	배*현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현	약학과
마음의 양식	장*린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교양가득 차약이	김*정	약학과
	이*지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박*	약학과
	한*훈	약학과
다독다독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정*희	약학과
마음의 한식	임*연	약학과
	강*망	약학과
	김*우	약학과
	이*영	약학과
독서의 힘	채*은	약학과
	장*영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여름방학

- 학과: 약학과
- 팀원: 박*정 유*리 안*영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스터디룸
- 학습 기간: 2022.10.01. ~ 2022.12.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31	20:00 ~ 22:00	스터디룸	‘아몬드’의 등장인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공감능력에 대한 주제로 토의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1/15	20:00 ~ 22:00	스터디룸	2차 활동에서는 <불안>을 읽고 작가의 생각과 공감하는 부분,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가가 제시하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 가장 자신과 맞는 방법을 찾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2/01	15:00 ~ 17:00	스터디룸	3차 활동에서는 《시선으로부터,》에 나오는 인물들의 서사에 대해 정리하며 각자 가장 인상적인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현재 한국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제사 문화와 소설 속의 가족들이 선택한 제사 방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았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인물들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신기했다. 학창시절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했는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다고 다들 같은 의견이었다.

▶2회차 감상평

작가가 말하는 불안의 원인 중 공통적으로 '능력주의'와 '불확실성'으로 골랐다. 하지만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3명이 모두 다른 해법을 골라서 신기했다. 살면서 떼어낼 수 없는 불안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3회차 감상평

작중 중심이 되는 인물인 심시선과 같이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사회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사 문화도 변해야 함을 느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바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

각자 읽고 싶은 책 한 권씩 선정하여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를 정해 토론해 보았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1회차 때는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다음 회차부터는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준비해서 토론에 임해 점점 더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된 것 같았다.

각자의 취향대로 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아니라 지루하게 느껴지고 잘 안 읽히는 책도 있었지만, 생각도 못했던 신선한 책도 있어서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을 한 것 같아 의미 있었다.

▶유*리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서 책 읽기가 쉽지 않은데 리딩리더스 활동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게 된 것 같다. 특히 인문학책도 선정하다 보니 지식이 풍요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안 그래 보였던 동기들이 생각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르게 보였다.

▶안*영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과정과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만, 평소에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말로 표현하니 생각이 정리되고, 동기들의 말을 듣고 다양하게 생각할 기회가 생겨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팀명 : 책!

- 학과: 의생명공학과
- 팀원: 이*은 양*영 윤*정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과학관, Jitsi Meet
- 학습 기간: 2022.11.01. ~ 2022.11.30.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01	14:00 ~ 16:00	과학관	대학원을 결정하는 길목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과 앞으로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와 태도
11/15	17:39 ~ 20:40	Jitsi Meet	생명체에게 있어 유전자의 존재 의의와 역할, 그리고 저자의 의견에 대한 비판과 토론, 시사점 찾기
11/30	20:27 ~ 22:45	Jitsi Meet	동물에게 배울 수 있는 순수한 행동을 기반으로, 인간이 슬기롭게 살기 위한 방법과 인간과 동물의 공존 방법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참여자 모두 대학원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토론이 어렵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내용들도 함께 새겨볼 수 있어 뜻깊었다.

▶2회차 감상평

생명과학도의 필독서라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토론까지 해볼 수 있어서 매우 생산적이었다. 유전학을 공부했지만, 유전자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여러 생각들을 나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넓어진 기분이다.

▶3회차 감상평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단순히 생명의 메커니즘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 알 수 없었던 동물 세계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편견에서 벗어나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종합 의견

책을 좋아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책을 읽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까지 책을 읽어야 하는 점과 책의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할 때 책의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활동에 대해 걱정이 많았지만, 읽고 싶었던 책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놓쳤던 부분을 바로 잡거나 색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신선하고 토론의 재미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책임기를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책을 멀리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억지로라도 책을 읽어 보니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앞으로도 책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 영어 클럽

- 영어 클럽 완료 명단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1. 북극곰과 함께 사는 차약이
 2. 음악영화 파헤치기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팀원	학과
북극곰과 함께 사는 차악이 (우수)	박*	약학과
	권*현	약학과
	김*경	약학과
	민*기	약학과
	이*지	약학과
	한*훈	약학과
음악영화 파헤치기 (우수)	정*희	약학과
	이*혜	약학과
	정*경	약학과
	이*원	약학과
	이*지	약학과
무비홀릭	김*정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희	약학과
	이*민	약학과
	김*희	약학과
차악 시네마톡	박*현	약학과
	김*정	약학과
	박*희	약학과
	서*연	약학과
	장*영	약학과
부귀영화	송*영	약학과
	김*본	약학과
	강*망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차악극장	장*린	약학과
	김*윤	약학과
	배*현	약학과
	이*연	약학과
	이*현	약학과
영화동물원	정*지	약학과
	이*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채*은	약학과
	김*우	약학과
도원결의2	임*정	약학과
	조*정	약학과
	김*솔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이*훈	약학과

팀명 : 북극곰과 함께 사는 차약이

- 학부: 약학과
- 팀원: 박* 권*현 김*경 민*기 이*지 한*훈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0.09. ~ 2022.10.23.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09	15:00 ~ 17:00	ZOOM	날씨의 아이 시청
10/16	15:00 ~ 17:00	ZOOM	2067 시청
10/23	15:00 ~ 17:00	ZOOM	투모로우 시청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날씨의 아이〉

날씨의 아이들은 '너의 이름은'과 비슷한 그림체로, 그 색감이 뛰어나고 영상미와 음악이 매우 좋은 작품이다. 처음엔 영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기후의 영향을 다루기보다는 날씨, 즉 비를 조절할 수 있는 소녀와 그와 만난 소년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 진행되었다. 앞뒤 전개 없는 로맨스는 없으며 날씨가 중요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소소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2회차 감상평

〈2067〉

공룡이 살고 있던 고생대, 중생대로 돌아가 보자. 그때는 당연했던 산소의 농도가 현대 지구에 들어서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만약 그때 살던 곤충이 현대 인류처럼 지능이 높았다면, 자신들은 점점 줄어드는 산소의 농도 속에서 적응해 나가야 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죽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곤충들은 살아남았고 그 크기가 줄어든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때는 수백만 년에 거쳐 이루어진 거지만 현재 인류가 닥친 상황은 겨우 50년도 안 되는 기간. 우리는 적응하여 진화할 수 없고 멸종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3회차 감상평

〈투모로우〉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카운트 다운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지구가 계속 더워질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빙하기가 온다. 그 이유는 해류의 이동이 찬바람이 만드는 편서풍과 그로 인해 생기는 심해류로 인함인데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바다의 흐름이 적어지게 되고 또한 남/북극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빙하들이 녹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바다의 염수는 점점 묽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빙하기가 초래된다. 투모로우는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이지만,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예정된 사실임에도 우리 지구는 점점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다. 이걸 전 국가적 조별 과제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나누었고 진짜 투모로우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종합 의견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 개의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려고 한다. 우선 우리 소모임의 제목인 “북극곰과 함께 사는 차악이”는 잘못된 이름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시적으로 변하는 것은 0도에서 어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동물인 북극곰으로 명칭을 지었지만, 비단 북극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해왔고 그 예상을 토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이 멸종한다? 사실 이걸 지금 와서 본다면 인간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리즐리 베어를 아는가? 그리즐리 베어는 회색곰으로 캐나다 지방에 사는 곰의 일종인데 그리즐리 베어와 북극곰인 플라베어의 교잡종인 그리즐라 베어가 최근 수십 마리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생식이 가능하며 그리즐리 베어와 비슷한 얼굴 생김새에 털은 북극곰 베이스의 회색곰의 털이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다. 이를 보면, 북극곰은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기존에 정착했던 북극에서 벗어나 회색곰이 살고 있던 아래 지방으로 내려와 유전자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화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간은 올해만 해도 각종 사고를 겪었다. 우리나라를 보면 강남역 침수 사건과 역대급 태풍이라고 말이 돌았던 한남노가 있고 유럽을 보면 수백, 수천 명이 죽은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스페인은 거의 50도에 달할 정도로 끔찍하게 더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한해를 보였다. 또한 산불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해안가는 점점 난류화가 되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류성 생선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 기후 위기의 핵심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다.

강남역 침수 사건을 보며 날씨의 아이처럼 비를 멈출 수 있었으면, 점점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 조성변화를 보며 2067년이 아니라 곧 2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공기 조성의 문제, 카운트다운을 위한 시계가 고작 20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을 보며 투모로우, 우리는 언젠가 닥칠 미래가 아닌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에 지구온난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 처해있다.

팀명 : 음악영화 파헤치기

- 학과: 약학과
- 팀원: 정*희 이*혜 정*경 이*원 이*지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9.28. ~ 2022.11.07.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9/28	16:00 ~ 18:30	ZOOM	각자 <위플래쉬>를 보고 난 후의 감상을 나누었다. 특히 많은 악기 중에서 드럼을 소재로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10/24	16:00 ~ 18:30	ZOOM	<스타 이즈 본> 시청 후 소감을 나누고 궁금증 및 결말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세 가지 감상 포인트를 공유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영화를 분석했다.
11/07	16:00 ~ 18:30	ZOOM	각자 집에서 <8마일>을 시청하고 감상평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 에미넴의 랩 또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1회차 감상평

<위플래쉬>를 감상한 이후에는 음악의 본질은 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간이기에, “그만하면 잘했다.”라는 위로가 분명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예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연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이 있어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회차 감상평

<스타 이즈 본> 영화에서 "Shallow"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I'll Never Love Again"이 인상 깊었는데, 노래 가사에서 그들의 사랑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또한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주는 위로와 힘이 크다고 생각했다. ‘음악이란 이런 힘이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3회차 감상평

현실과 랩퍼라는 꿈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울지도 모르는 기회에 항상 가사를 쓰며 연습하면서 자신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영화를 보고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삶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

▶종합 의견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음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음악의 본질은 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간이기에, “그만하면 잘했다.”라는 위로가 분명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예술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통을 당연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이 있어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음악영화를 감상해서 좋았던 점은 영화를 보면서 훌륭한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스타 이즈 본> 영화에서 "Shallow"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I'll Never Love Again"이 인상 깊었는데, 노래 가사에서 그들의 사랑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에미넴의 노래인 "Love yourself"도 인상 깊었으며 랩에 흥미가 없었던 조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관심사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열심히하조
 2. BIPS
 3. 팡팡2요
 4. H+able
 5. RAV
 6. STEP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열심히하조	권*서	의생명과학과
	변*빈	의생명과학과
	이*희	식품생명공학과
BIPS	박*연	바이오공학과
	박*희	바이오공학과
	홍*라	바이오공학과
	김*	바이오공학과
	조*지	바이오공학과
팡팡2요	신*철	약학과
	김*정	약학과
	김*영	약학과
	장*린	약학과
	조*정	약학과
H+able	이*혁	시보건의료학부
	윤*연	시보건의료학부
	백*우	시보건의료학부
	정*희	시보건의료학부
	성*현	시보건의료학부
RAV	이*희	바이오공학과
	황*진	바이오공학과
	강*연	바이오공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이*우	바이오공학과
STEP	홍*기	스포츠의학과
	김*석	스포츠의학과
	이*훈	스포츠의학과
	최*인	스포츠의학과
	임*원	스포츠의학과
	김*수	스포츠의학과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팀명 : 열심히 하조

- 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지도교수: 곽*범
- 팀원: 권*서 변*빈 이*희
- 학습과목: 일반생물학 II
- 학습장소: 과학관 1층 테라스
- 학습 기간: 2022.10.01. ~ 2022.12.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01	13:00 ~ 16:00	과학관 1층 테라스	4주차 학습내용 복기 및 팀원 간의 발표 교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시험 실시 5주차 학습내용 예습
10/08	13:00 ~ 16:00	과학관 1층 테라스	5주차 학습내용 복기 및 팀원 간의 발표 교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시험 실시 6주차 학습내용 예습
10/15	13:00 ~ 16:00	과학관 1층 테라스	6주차 학습내용 복기 및 팀원 간의 발표 교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시험 실시 7주차 학습내용 예습 (10월 15일, 22일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쉬어감)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전반적으로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성적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직전 학기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다들 굉장히 향상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교수님들이 각각 달랐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과 더불어 시험 기간에 유리한 요약 정리본과 이해에 유리한 설명본을 둘 다 얻을 수 있어서 시너지가 났던 것 같다. 세 명이 전부 기숙사에 살아서 특히 더 유리하게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공부하니 시험 기간에 돌입해서는 전공 하나가 없어진 듯한 공부량으로 다른 과목을 더 준비할 시간이 되어 여러모로 성적향상에 유리했다.

▶ 권*서

교수님이 달라서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후에 서로 다른 두 교수님의 강조 부분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학습한 뒤에 강조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스터디하였다.

▶ 이*희

세 명이 전부 다 기숙사에 살아서 매주 만나서 소모임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다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공부하니 시험기간에 돌입해서는 전공 하나의 공부량이 현저히 줄어서 전체적인 평점이 오른 것 같다.

▶ 변*빈

이번 학기에는 일반생물학 담당 교수님이 새로 맡으신 분도 있으셔서 걱정했는데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같고 팀원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요약정리를 우선하시고 나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ppt에 정리하시는 경향을 보여서 두 개의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팀명 : BIPS

- 학과: 바이오공학과
- 지도교수: 정*형
- 팀원: 박*연 박*희 홍*라 김* 조*지
- 학습주제: 면역활성 기반 신규물질 개발: 진세노사이드 흡수율과 구조의 관계
- 학습장소: CBC
- 학습 기간: 2022.10.01. ~ 2022.12.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7	17:00 ~ 20:00	CBC	Neutral Red assay
11/23	16:00 ~ 19:00	CBC	NO assay
11/30	16:00 ~ 19:00	CBC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구조분석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먼저 좋은 교수님과 멘토님과 매칭이 되어, 이렇게 교과 시간 외에 팀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기회이고 질 높은 학습환경이다. 이제 방학을 포함하여 3번째 활동을 끝마쳤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팀원 개개인의 실험 숙련도가 높아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활동 초반에는 멘토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전달받는 자료가 많았는데 지금은 직접 찾아서 회의 시간을 통해 사고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우리 팀은 이번 학기에 변경된 주제인 '진세노사이드의 체내 흡수율과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실험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지식의 한계도 있었으나 여러 번 반복하여 실수를 줄여나가고 머리를 맞대고 실험 결과를 고민하고 토론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박*희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실험실을 오가야 했기에 힘든 일정이었는데 팀 안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실험하고 그 내용을 서로 잘 공유했기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홍*라

실험의 모든 결과가 중요했는데 실수가 생겼을 때는 절망감이 있었다. 다음에 같은 실험을 반복할 때 서로가 지켜보며 피드백을 주고 주의해야 할 부분을 미리 공유하고 진행하여 실수를 줄여 나갔던 게 기억에 남는다.

▶박*연

잘 알지 못하는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활동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몇 개의 가설을 세워 보고 자료를 공부하고 또 회의를 통해 어떤 사실을 찾아낼 때마다 큰 희열을 느꼈다.

▶조*지

매 학기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했던 것이 좋았다. 보고서를 쓰는 것도 수월해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부딪힘을 느꼈다.

▶김*

홍삼의 주성분이 진세노사이드인 것은 알았지만 진세노사이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다른 흡수율을 가지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분자구조를 분석해 보는 활동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활동을 하고 싶다.

팀명 : 팡팡2요

- 학과: 약학과
- 지도교수: 최*윤
- 팀원: 김*정 조*정 김*영 신*철 장*린
- 학습주제: 약물치료학III: 항암치료의 원칙
-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 학습 기간: 2022.11.11. ~ 2022.11.2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11	17:00 ~ 19:00	과학관 102호	항암치료 원칙 단원을 공부하고 정리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 조원들 각자 항암치료 원칙에 해당하는 case 문제 및 이론 문제를 풀어본 뒤 화요일에 모여서 각자의 답안을 비교하고 토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시간을 재고 암기한 뒤 대화하며 구두 퀴즈를 진행했다.
11/14	16:00 ~ 18:00	과학관 102호	암 지지요법을 공부하고 정리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 조원들 각자 암 지지요법에 해당하는 case 문제 및 이론 문제를 풀어본 뒤 화요일에 모여서 각자의 답안을 비교하고 토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시간을 재고 암기한 뒤 대화하며 구두 퀴즈를 진행했다.
11/28	16:00 ~ 18:00	과학관 102호	폐암 단원을 공부하고 정리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 조원들 각자 폐암에 해당하는 case 문제 및 이론 문제를 풀어본 뒤 화요일에 모여서 각자의 답안을 비교하고 토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시간을 재고 암기한 뒤 대화하며 구두 퀴즈를 진행했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저번 학기에 동일한 교수-학생 소모임 활동을 했던 인원 중 거주지가 가깝고 일정 조율이 용이한 동기들끼리 또다시 팀을 꾸려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두가 지난 학기의 스터디 활동을 통한 학습효과를 크게 보았으므로 저번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단원에 대한 이론을 각자 공부하고,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모여서 스터디 시간에 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함께 해결한 뒤, 수업자료를 다시 훑으면서 외워야 할 부분에 대한 암기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단원을 두 번 복습한 다음 case study를 진행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약물치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매 단원을 3회독씩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통한 장기기억 학습효과를 볼 수 있었고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 김*정

혼자서 공부하기엔 어려운 과목인데 동기들과 다 함께 공부하니까 힘들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저번 학기에 이어 양이 방대한 과목이라 암기한 내용을 복습하기 어려웠는데 스터디 활동을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 김*영

문제풀이를 할 때 스터디 활동시간에 함께 해설을 덧붙여 공부하니까 혼자 해결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단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약속한 기한까지 문제풀이를 약속하다 보니 진도가 밀리지 않아서 좋았다.

▶ 신*철

수업 후 다 같이 암기하고 바로 문제를 풀었더니 정리가 잘 되었고 시험 기간에 암기하기도 편했다. 문제를 풀어보니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더 잘 알게 되었다.

▶ 장*린

처음 수업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함께 토의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내용을 흡수할 수 있었고, 다양한 암기법을 만들어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쉽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 조*정

기존에 혼자서 공부할 때는 수업을 들은 후 별도로 암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시험 기간에 힘들었다. 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해 다 같이 암기하고 모르는 부분을 함께 토론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팀명 : H+able

- 학과: 시보건의료학부
- 지도교수: 한*미
- 팀원: 이*혁 윤*연 백*우 정*희 성*현
- 학습주제: 디지털헬스케어 기초지식 습득
- 학습장소: 미래관 409호
- 학습 기간: 2022.11.01. ~ 2022.11.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1/01	16:00 ~ 18:00	미409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논문 조사 및 발표
11/08	16:00 ~ 18:00	미409호	보건의료산업의 이슈 & 문제점
11/15	16:00 ~ 18:00	미409호	디지털 헬스케어 기초 지식 습득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해 할 수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관련 논문 조사 및 발표 시간을 통해 서로 모르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보안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보안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초 지식 습득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도메인 지식을 이해했고 산업의 등장 배경, 어떤 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시보건의료학부 학생으로서 어떤 점을 공부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다.

▶이*혁

시보건의료학부생으로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런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른 조원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함으로써 기초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어서 부듯한 시간이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해 공부함으로써 데이터의 특징 및 현재 보건의료데이

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에 알게 된 시간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공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공부 역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시간이었다.

▶윤*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소모임 진행을 하였는데 발표를 위해 여러 논문이나 뉴스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제가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발표도 들으면서 디지털헬스케어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산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책으로 스스로 손 코딩도 해보고 프로그래밍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백*우

매주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이를 공유하며 여러 매체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점에서 흥미로웠던 소모임 활동이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사 및 사설부터 학술 논문까지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논점과 동향 등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부 학생들이 모여 정기적인 스터디를 진행하여서인지 적극적으로 각자의 세부 관심 분야와 생각을 나눠줘서 스터디에 참여했던 팀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던 소모임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희

소모임을 통해서 부원들과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논문과 기사 등을 발표하며 단체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혼공파라는 책으로 각자 공부해서 소모임 날 어려웠던 부분을 공유하며 그에 대한 피드백과 더 좋은 정보 공유를 통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나가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높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성*현

다소 생소했던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하게 된 기회라 걱정도 기대도 많았다. 고등학교 재학 중 배웠던 코딩과 관련된 과정이 꽤 있었고 그 안에서 재미도 느끼며 공부해 나갔다.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개념과 전망,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다.

팀명 : RAV

- 학과: 바이오공학과
- 지도교수: 임*석
- 팀원: 이*희 황*진 강*연 경*혜 이*우
- 학습주제: cell culture 이론, 실험 방법 조사, 실험진행
- 학습장소: CBC
- 학습 기간: 2022.10.24. ~ 2022.11.18.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4	18:00 ~ 20:00	CBC	Cell culture 이론과 protocol을 조사한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진행, 실험 전 protocol을 숙지하고, 실험 후 Cell culture 결과 팀원들과 공유
11/04	11:00 ~ 19:00	CBC	qRT-PCR 이론과 protocol을 조사한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진행, 실험 전 protocol을 숙지하고, 실험 후 qRT-PCR 결과 팀원들과 공유
11/18	13:00 ~ 19:00	CBC	WST-1 assay 이론과 protocol을 조사한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진행, 실험 전 protocol을 숙지하고, 실험 후 WST-1 assay 결과 팀원들과 공유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처음 소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부족한 실험 지식과 스킬을 쌓기 위해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혼자 했었다면 막막했을 것이지만 팀원들과 함께 실험 이론, 원리 등과 같은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직접 실험을 경험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실험의 이론과 protocol을 조사함으로써 실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팀원들끼리만 소모임을 진행했다면 자칫 어려웠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직접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실험 스킬을 쌓을 수 있었다.

▶황*진

Cell culture, wst-1, PCR은 생명 공학 실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실험이지만 전공 수업 중

이론으로만 접해 실험 경험이 부족해 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진행한 이번 소모임을 통해 실험의 프로토콜을 직접 작성하며 실험 과정에 대해 더욱 심화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과정을 더욱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실험을 완료했을 때의 성취감과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 더 정확한 실험 방식과 실제 사용되는 실무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인상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강*연

교수-학생 소모임을 통해 논문을 공부하고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니 재미있고 배운 점이 많았다. 이론으로만 공부하다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부족한 점을 깨달았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더 나은 실험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혼자 실험과 공부를 했다면 지루했을 것 같은데 동기들과 함께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소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경*혜

이전에는 전공 시간에 실험수업을 들었을 때는 다 같이 한 수업을 듣다 보니 진행하는 실험에 대한 방법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배울 때 뭔가 제대로 배웠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전공 이외의 시간에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려는 실험의 이론도 찾아보고, 어떤 실험을 진행할 건지, 이 실험을 하려고 하는 이유 등을 생각해 보면서, 실험을 진행해보니 많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팀원들과 같이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에 관해 물으면서 하니 이해도 잘 되고, 실험스킬이 조금은 는 거 같아 재미있고 기뻐다.

▶이*희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Cell culture, qRT-PCR, WST-1 이론,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protocol 등을 조사한 후 팀원들과 공유함으로써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또한 팀원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내가 조사한 자료들과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총 3번의 소모임을 진행한 후 이를 통해 실험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인터넷이나 전공책에서만 보던 실험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우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 일회용으로 진행하고 끝냈던 실험들과는 다른 경험이었다. 직접 실험의 개념에 관해 공부하고 프로토콜을 짜면서 내가 이 실험을 왜 진행하고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다음 실험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뒸했다. 하지만 실험하면서 아직 서툰 점도 많았고, 알아야 할 개념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험적 지식과 규칙 같은 사소한 것들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얻은 것보다 앞으로 남은 실험에서 얻어야 할 결과들이 한참 많이 남았지만, 팀원들과 고민하고 시간을 쪼개며 진행한 실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었으며 지금부터 또 해나갈 실험들이 기대되는 것 같다.

팀명 : STEP

- 학과: 스포츠의학과
- 지도교수: 이*석
- 팀원: 홍*기 김*석 이*훈 최*인 임*원 김*수
- 학습주제: 스트레칭 강의
- 학습장소: 의정부 체육관, 미래관604호, 미래관601호
- 학습 기간: 2022.10.02. ~ 2022.12.0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0/25	19:00 ~ 22:00	의정부 체육관	의정부 체육관에 방문해 학과 소개 및 스트레칭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11/17	15:00 ~ 18:00	미래관 604호	올바른 스쿼트에 대한 토론
11/24	16:00 ~ 18:00	미래관 601호	질환별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 및 교수님의 피드백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스포츠 의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항상 학과 공부만 진행하던 친구들이었지 만 서로 세미나도 다녀오고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온 것들을 모아서 공유하다 보니 더 깊은 학문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내가 올바른 치료 방식을 선택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좋았다.

▶김*수

스터디와 재능기부 등의 step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두 진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줄 우리 팀 파이팅입니다.

▶최*인

다른 스터디들과는 다르게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강점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지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평소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발표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포츠의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웠던 내용을 나누고 실습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실습을 모여서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

친구들과 후배들과 학과 공부를 하면서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서로 자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의 능력도 높이고 모르는 부분은 배우며 서로 도울 수 있었다.

▶홍*기

남들에게 재능을 기부해 준다는 부딪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자발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을 진정한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능기부를 했던 지식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다. 스포츠의학과에 진심인 학생들이 모여 서로 의논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니 정말 재미있었고 스포츠의학에 흥미가 더 생겼다. 소모임이 끝나도 이 팀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훈

스포츠의학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실습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이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습, 그리고 전공에 대한 가치관의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2022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VII.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1. 토익토익공
 2. 시나공아 힘을 빌려줘
 3. Pioneer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토익토익공 (우수)	이*서	식품생명공학과
	최*지	식품생명공학과
시나공아 힘을 빌려줘 (우수)	서*원	의생명과학과
	전*연	의생명과학과
	홍*서	의생명과학과
Pioneer (우수)	최*희	의생명과학과
	양*진	바이오공학과
	정*서	의생명과학과
	황*진	바이오공학과
	이*우	바이오공학과
최곽유조김	김*우	의생명과학과
	곽*구	약학과
	김*안	약학과
	유*훈	약학과
	조*진	약학과
약학과 상은 우리가!!	최*준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이*민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정	약학과
2:0	오*은	식품생명공학과
	이*영	식품생명공학과
약술대회	이*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문*주	약학과
	서*연	약학과
공조	이*은	바이오공학과
	변*빈	의생명과학과
구강건강최강	이*슬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장*영	약학과
왕꿈들이	채*은	약학과
	김*우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이*영	약학과
	이*연	약학과
	임*정	약학과
	정*지	약학과
호잇채!	황*	약학과
	강*기	약학과
	임*식	약학과
	최*우	약학과
	최*혁	약학과
후퍼스는 토익을 찢어	구*하	미술치료학과
	안*원	시보건의료학부
	유*예	상담심리학과
토익여신	김*정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도원결의	김*연	의생명과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조*진	의생명과학과
겨울간식들의 갯쟁	김*	바이오공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일본어 기초는 배우고 여행가자	김*안	약학과
	곽*구	약학과
	유*훈	약학과
	최*준	약학과
	조*진	약학과
니혼진데스까?	박*연	바이오공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최*영	바이오공학과
	인*은	바이오공학과
	장*휘	스포츠의학과
차의보감	서*연	약학과
	김*정	약학과
	문*주	약학과
	이*연	약학과
가람슬기	윤*빈	약학과
	김*영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조*림	약학과
	신*	약학과
	최*혁	약학과
	한*희	약학과
독일어 완전 격파	이*영	약학과
	김*우	약학과
	임*정	약학과
	이*연	약학과
	정*지	약학과
	채*은	약학과
토익중독	장*영	약학과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이*슬	약학과
오픽승코리아	장*린	약학과
	배*현	약학과
	이*현	약학과
일본 갈끄니깐	조*정	약학과
	김*슬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이*훈	약학과
지혜로운 고구마	조*영	바이오공학과
	권*혜	바이오공학과
	윤*진	바이오공학과
토익독학쟁이들	주*빈	간호학과
	박*우	간호학과
	권*현	간호학과
	손*이	간호학과
	권*하	간호학과
여행 일본어 완전정복	최*우	약학과
	강*기	약학과
	임*식	약학과
	최*혁	약학과
	홍*	약학과
교찬아도 해야지	한*영	간호학과
	이*교	간호학과
3토익3	홍*라	바이오공학과
	박*연	바이오공학과
	이*원	바이오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중국어 정복자들	김*안	약학과
	채*은	약학과
차이브	강*기	약학과
	임*식	약학과
	최*우	약학과
	최*혁	약학과
	황*	약학과
	강*망	약학과
1월에 컴활1급따자	김*본	약학과
	송*영	약학과
	이*영	약학과
	임*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경*혜	바이오공학과
구황작물들의 컴활 일기	김*	바이오공학과
	심*미	바이오공학과
	김*중	바이오공학과
	노*주	바이오공학과
QSS (Que sera, sera)	윤*진	바이오공학과
	박*희	약학과
향수부리cha	박*현	약학과
	장*영	약학과
	이*슬	약학과
	유*규	시보건의료학부
SSG 워너비	송*영	시보건의료학부
	성*현	시보건의료학부
	이*현	약학과
컴활활활	배*현	약학과
	장*린	약학과
	이*훈	약학과
	김*솔	약학과
마지막 컴활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조*정	약학과
	조*현	상담심리학과
	서*수	상담심리학과
D-95	공*동	상담심리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차리스마스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이*민	약학과
	김*정	약학과
온리아모레	김*정	약학과
	이*연	약학과
	최*준	약학과
	조*진	약학과
품질높은 소동이들	김*정	약학과
	문*주	약학과
	서*연	약학과
	이*연	약학과
멋진 약사가 되고 싶어요	김*솔	약학과
	김*영	약학과
	신*철	약학과
	이*훈	약학과
	조*정	약학과
약제 척척박사	김*희	약학과
	김*경	약학과
	김*희	약학과
	김*연	약학과
	이*민	약학과
	김*정	약학과
약제왕	김*본	약학과
	강*망	약학과
	송*영	약학과
	임*연	약학과
	정*희	약학과
실습으로 향하는 약치버스	박*현	약학과
	박*희	약학과
	이*슬	약학과
	장*영	약학과
Abstract	안*운	의생명과학과
	김*준	의생명과학과
	김*연	식품생명공학과
	오*은	식품생명공학과
논문은 껌이조	윤*현	의생명과학과
	김*정	바이오공학과
	이*은	바이오공학과
	이*원	바이오공학과
	조*현	의생명과학과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팀명 : 토익토익공

- 학부: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이*서 최*지
- 학습주제: TOEIC 스테디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2.17. ~ 2023.01.15.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1/06	22:20 ~ 24:00	ZOOM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2 5회 문제 풀이 R/C Part 5 학습 방법 공유 기출문제에 출제된 단어 암기
01/09	19:35 ~ 22:00	ZOOM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2 6회 문제 풀이 R/C Part 6 학습 방법 공유 기출문제에 출제된 단어 암기
01/13	21:25 ~ 23:43	ZOOM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2 7회 문제 풀이 R/C Part 7 학습 방법 공유 기출문제에 출제된 단어 암기

○ 활동 소감

▶이*서

3회차 활동으로 동계방학 소모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3번의 Test 풀이로 연습을 진행하며, 1월 14일 토익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다. 짧은 기간의 소모임을 처음 진행하게 되어 3회차까지 진행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실질적으로 약 1~2주간 진행하지 못했는데 좀 더 길게 했으면 결과적으로 실력 향상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어에 많이 취약하여 소모임과 같은 활동이 필요했고, 팀원과 함께 학습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짧은 기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소모임을 참여하며 혼자서 공부하는 것과 함께 공부하는 것 둘 다 배울 수 있었다. 2023 신입생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동계방학 소모임을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토익 점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토익 풀이와 학습법 공유를 할 수 있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실력을 증진하고 싶다.

▶**최*지**

이번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의 최종 목표는 1월 14일에 응시하기로 한 토익 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였다. 이에 맞춰 단기간 가장 좋은 전략으로 성과를 이루고자 3회차까지 진행하면서 팀원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학습 내용을 구체화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L/C보다는 R/C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파트별로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따로 정리하고 실전에 대한 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스스로 정리하기에도 좋고, 팀원과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학습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습법 소모임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얻어가는 점들이 있다면, 스스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이다. 내가 혼자 정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깔끔하게 정리하게 된다. 가독성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더욱 완벽해야 하고, 사소한 점들 하나도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다.

1회차에 목표했듯이 크게 두 가지 개선점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1) 자주 출제되는 어휘 (2) 부족한 시간에 대한 개선점이었는데, 1월 14일 실제로 토익시험을 응시했고,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L/C파트 시작 전 나오는 설명 부분에서 파트 5를 대략 15문제 정도 풀어두었는데, 확실히 시간분배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파트 7을 풀 때, 176번~200번을 먼저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많은 지문을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서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의 독해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 효율적이었다. 이번 토익 시험은 준비 과정은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동기들과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동계방학 소모임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기에 단기적으로 토익을 준비하기 좋을 것 같아 토익(어학)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학년이 되면서 좀 더 바쁘고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공부할 시간이 적은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이 각자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토익 시험을 보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팀명 : 시나공아 힘을 빌려줘

- 학부: 의생명과학과
- 팀원: 서*원 전*연 홍*서
- 학습주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2.24. ~ 2023.01.0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24	10:31 ~ 12:43	ZOOM	필기 1과목의 1/3가량을 공부함. 해당 공부 내용에 대해 진짜 공부했는지 문제 몇 개를 내어 테스트 진행. 컴활 2급 실기관련 문제가 정리된 PDF로 직접 실기를 진행 함. (2020년도 상시1, 상시2 문제내용)
12/30	11:04 ~ 13:23	ZOOM	필기 1과목의 60%가량을 공부함. 해당 공부내용에 대해 진짜 공부했는지 문제 몇 개를 내어 테스트 진행 및 오답 관련 이론 공부 및 피드백을 진행함. 공부한 필기 내용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어봄. 저번 소모임 때 모두가 실기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아, 먼저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저번에 풀었던 문제를 천천히 다시 풀어봄.
01/09	15:18 ~ 16:52	ZOOM	한 주간 필기의 1과목 100%, 2과목 20% 정도 공부를 진행하였고, 실제 필기고사처럼 40분 시간을 맞춰 모의 테스트를 진행함. 이후 점수 체크 후 오답관련 공부와 공부 방식 피드백을 진행함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방학 기간에 각자 거리가 멀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소모임 활동에서 주로 각자 한 주간 무슨 공부를 했는지 피드백을 했기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함과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통해 동기부여를 갖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주 1회씩 진행하다 보니 3회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이 짧아 아쉬웠으나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던 것도 나름 좋게 작용한 것 같다.

▶서*원

이번 방학이 아니면 시간이 언제 될지 확실하지 않아 딱 이번에 마음먹고 시작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같이하는 친구들이 제가 시간을 놓치면 먼저 연락해서 알려주며 저를 이끌어 주어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4일 시험을 보았을 때 서로 문제도 내주면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면서 맞추게 된 문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소모임이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필기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기에 제게 더욱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연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공부하여 합격하는 것이 이번 방학의 목표였는데, 공부를 시작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소모임 활동을 신청하였기에 더욱 굳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고, 팀장 친구가 잘 이끌어줘서 힘을 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에 응시하지는 않았지만, 더 공부하여 이번 달 내에 필기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소모임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번 방학도 허무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신청하자고 저를 설득해 주고 이끌어 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서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활용 자격증을 목표로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동기들과 함께 서로 같은 문제집을 구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각자 풀어보고 1주일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만나 어려웠던 문제나 서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전에 컴퓨터 자격증을 몇 번 따봤던 나에게 있어 컴활 공부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으나 가끔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면 소모임을 진행할 때 동기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풀어가곤 하였다. 공부는 주로 스프레드시트, 흔히 엑셀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함수에 관한 내용이 많았으며, 이 외에도 window에 존재하는 여러 기능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 아직 컴퓨터 활용 자격증 시험을 치르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더욱 공부를 진행해 지식을 쌓고 시험을 봐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팀명 : Pioneer

- 학부: 의생명공학과, 바이오공학과
- 팀원: 최*희 양*진 정*서 황*진 이*우 김*우
- 학습주제: 논문 분석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3.01.05. ~ 2023.01.12.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1/05	18:00 ~ 20:00	ZOOM	논문 [Sensitizing tumors to anti-PD-1 therapy by promoting NK and CD8+ T cells via pharmacological activation of FOXO3] abstract부터 fig2까지의 내용과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론, 실험 방법(Western blot, immunofluorescent)들을 같이 공부하고, 질문 및 토론 진행
01/08	20:00 ~ 22:00	ZOOM	논문 [Sensitizing tumors to anti-PD-1 therapy by promoting NK and CD8+ T cells via pharmacological activation of FOXO3] fig3부터 fig7까지의 내용과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론, 실험 방법들(FACS, TUNEL assay 등)을 같이 공부하고, 질문 및 토론 진행
01/12	20:00 ~ 22:00	ZOOM	논문 [Sensitizing tumors to anti-PD-1 therapy by promoting NK and CD8+ T cells via pharmacological activation of FOXO3] fig8부터 discussion까지의 내용과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론, 실험 방법(Flow cytometry) 들을 같이 공부하고, 질문 및 토론 진행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논문을 볼 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고, 서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더 자세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활발한 의사소통은 논문을 보는 우리 소모임의 기능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첫 시간 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색함이 꽤 남아 활발하게 대화가 이어 나가지 못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모든 것이 영어로 쓰여 있고, 모르는 단어와 개념들이 넘쳐나 한 개의 논문을 보는 것도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어려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논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논문을 읽는 꿀팁 정도만 얻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모두 방학 때, 자기만의 일정으로 바쁠 텐데, 많은 시간을 내어 논문을 읽고, 나누어준 학습지들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며, 소모임 활동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모임 활동이 매우 보람찼으며, 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다양한 실험 방법들과 다양한 개념들, 논문의 디테일한 부분 등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찼으며, 더 의미 있고, 도움 되는 소모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최*희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영어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르는 단어와 개념, 결과 사진 등등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논문을 읽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논문을 처음 접하고, 해당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논문을 읽는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 많은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꿀팁들과 다양한 개념들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논문 읽기에 도전하는 분들에 비하여 쉽게 논문을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논문을 접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처음 접하거나, 논문 읽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문 꿀팁 등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하여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양*진

논문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다시 배우고자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논문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활동마다 나누어주신 학습지를 통해 각 figure의 요점과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실험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활동에서 다룬 논문은 면역세포 활성을 통한 암 치료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며 평소 관심 있었던 면역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짧았지만,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알아간 것 같아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활동 경험이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우**

이번 소모임을 통해 Sensitizing tumors to anti-PD-1 therapy by promoting NK and CD8+ T cells via pharmacological activation of FOXO3 논문을 읽고 논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실험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험 기법이 사용된 덕분에 그만큼 다양한 실험의 원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 같이 공부함으로써 내가 논문을 읽을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찰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 덕분에 다음에도 같이 논문을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우**

실험을 위해 논문을 찾아보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없어 이번 소모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실험 이론과 방법을 읽어보고 조사해 보면서 지금까지 이름만 알았었거나 대충 익혔던 개념 혹은 실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igure를 분석해 보며 이런 실험에는 어떤 그래프가 쓰이고 어떤 용어들이 쓰이는지도 알게 되었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실험마다 적혀있는 군을 설정하게 된 이유, 연관성을 고려해 가며 읽다 보니 훨씬 실험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논문을 다 읽고 튜터분께서 해주신 설명을 들으니 한 번 더 복습이 되면서 이해가 수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더 활발히 논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다면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

학년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전공에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 면역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막연한 관심일 뿐이었다. 논문 읽는 활동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관심 분야를 찾고자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논문을 깊게 읽어봤던 것 같다. 항상 논문을 읽기보다는 참고하기 위해 특정 부분만 찾아 읽곤 했었다. 그러다 보니 논문을 잘 읽는 방법은 알지 못하고, 논문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논문을 읽어보면서 각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논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면역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관심 분야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논문 이해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황*진**

실험에 대한 protocol을 찾기 위해 읽은 논문 이외에는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 필요한 과정만 보고 짧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멘토분이 주시는 학습지를 따라 읽으면서 혼자 논문을 읽었다면 놓쳤을 부분을 꼼꼼히 읽을 수 있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논문과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꼭 방학 때만 활동을 통해 논문을 읽지 않고 혼자서도 읽어 나가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멘토님이 항상 주차마다 학습지도 만들어 주시고 매번 잘 읽었는지 확인해 두셔서 더 동기부여가 되어 더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암세포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분야와 가까워져야 할지 막막했는데, 앞으로 관련된 논문을 읽어가며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공부하는 데에 이번 활동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VIII.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RAV
 2. 영.실.향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3. MGL
 4. 연구? 우리도 할 수 있어
 5. 미신이들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팀명	팀원	학과
RAV	경*혜	바이오공학과
	황*진	바이오공학과
	강*연	바이오공학과
	이*희	바이오공학과
	이*우	바이오공학과
영.실.향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홍*의	간호학과
	김*지	간호학과
	이*수	간호학과
MGL	서*원	의생명과학과
	홍*서	의생명과학과
연구? 우리도 할 수 있어	김*림	상담심리학과
	이*표	상담심리학과
	송*한	상담심리학과
	김*수	상담심리학과
	김*준	상담심리학과
	연*량	상담심리학과
	장*서	상담심리학과
미신이들	오*혜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박*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팀명 : RAV

- 학과: 바이오공학과
- 지도교수: 임*석
- 팀원: 경*혜, 황*진, 강*연, 이*희, 이*우
- 학습주제: Cell culture 실험
- 학습장소: 대면
- 학습 기간: 2023.01.02. ~ 2023.01.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1/02	14:00 ~ 16:00	대면	Cell culture 실험
01/06	14:00 ~ 16:00	대면	WST-1 이론 및 WST-1 실험
01/11	14:00 ~ 16:00	대면	RNA isolation, cDNA synthesis 실험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강의 시간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실험을 진행해서 실험 스킬을 향상하고자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번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학교 강의 시간 이외의 시간에 팀원들과 같이 실험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protocol을 작성해 보고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따로 혼자 실험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같이 팀원들과 하는 활동이다 보니 이론 혹은 실험하는 중에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물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차시가 진행될수록 보완해야 할 점이 명확하게 보여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진

학교에서 배웠던 실험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짜고 진행하면서 익숙하게 다루지 못했던 도구들과도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팀원들끼리만 진행했다면 실수가 발생하거나 실험 과정이 정확하지 않았을 텐데 이를 교수님께 확인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 더욱더 정확한 실험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강*연

세포 증식 능력과 생존 능력을 정량하기 위한 wst-1을 이론으로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고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 보니 실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느려서 아쉬웠다. 더 연습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경*혜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하면서 학교 강의시간에는 배울 수 없었던 실험들에 대해 진행해 볼 수 있었고, 진행하는 실험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거 같다. 무엇보다 protocol을 토대로 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면서 배운 좋은 경험을 배웠고, 실험기구에 손이 익은 거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거 같다.

▶이*희

이번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다가가기 어렵던 실험의 이론에 관해 공부하고 그 이론을 통해 protocol을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실험 이론에 관해 공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될 수 있어서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가 됐고 실험 스킬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우

처음 프로토콜로만 익혔을 때는 감이 잘 오지 않았었는데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WST-1 실험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실험 중 손이 많이 갔던 실험이었기 때문에 작은 행동, 실수 하나하나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팀명 : 영.실.향

- 학과: 간호학과
- 지도교수: 신*나
- 팀원: 홍*의, 김*지, 이*수
- 학습주제: 영어 Speaking, Reading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2.27. ~ 2023.01.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27	13:00 ~ 15:00	ZOOM	사전에 교수자가 선정한 2편의 미국(영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줄거리와 저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수자로부터 습득하고 영화 소재를 통한 실제적 영어 회화 학습과 영어 구사를 통한 토론 학습으로 진행
01/05	11:00 ~ 13:00	ZOOM	1시간 동안은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 토익 영단어 암기 인증과 RC 중 어려웠던 문제들을 돌아가면서 풀고 설명
01/11	12:00 ~ 14:00	ZOOM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영어 회화 표현 사용해서 간단한 스피킹 토익 문제를 풀고 해설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소모임 활동은 크게 스피킹 연습과 토익 RC 공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과의 첫 수업에서는 영화 2편을 선정하고 사전에 감상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영어로 소감을 나누고, 인상 깊게 들어서 나누고 싶은 문장을 영어로 나누고, 자주 쓰이는 표현에 대해 스피킹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끼리 진행한 스피킹 시간에는 배웠던 자주 쓰이는 표현을 복습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영어로 나누며 연습했습니다.

토익은 각자 문제를 풀고, 특히 어려웠던 내용 혹은 함께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가져와 셋이 의견과 지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횟수는 아니었으나, 단톡방을 만들어 교수님께서 풀어보면 좋은 토익 문제와 자주 쓰이는 표현을 매일 알려주셔서 꼼꼼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

영어 소모임을 하면서 영어로 실용 회화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항상 입력하는 공부만 하고 출력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꾸준히 하여 실력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및 동기들과 함께하니깐 실력 파악도 제대로 되고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수

이번 영어 소모임을 통해 영화를 이용해서 좀 더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표현을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홍*의

혼자서라면 성실하게 하기 어려웠던 영어 스피킹 공부를 효과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과 소수로 수업을 하며 스피킹을 연습할 기회가 많았고, 토익 공부도 모르는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명 : MGL

- 학과: 의생명과학과
- 지도교수: 곽*범
- 팀원: 서*원, 홍*서
- 학습과목: 면역학
- 학습장소: CBC 526호
- 학습 기간: 2022.12.23. ~ 2023.01.11.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23	16:00 ~ 17:00	CBC 526호	면역학 Chapter 1의 면역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학습 후 교수님과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12/29	15:30 ~ 17:00	CBC 526호	면역학 Chapter 2. 초중반부. 주로 즉각 내재 면역의 보체계에 대한 내용 학습 후 교수님과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01/03	16:30 ~ 17:30	CBC 526호	면역학 Chapter 2. 중후반부. 보체계 중에서도 최종보체단백과 관련한 내용 및 그 외 응고계 키닌계 등의 기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학습 후 교수님과의 문답시간을 가졌다.
01/06	14:30 ~ 16:00	CBC 526호	분자생물학 Chapter 1.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 이론은 어떤 실험이나 방식을 통해 증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학습 후 교수님과의 문답 시간을 가졌다.
01/11	10:30 ~ 11:00	CBC 526호	면역학 Chapter 3. 초·중반부. 내재면역 중에서도 유도 내재면역반응에서 대식세포가 어떤 수용체를 통해 반응하고 기능하는 지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를 학습 후 교수님과 문답 시간을 가졌다.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아예 기초 지식이 전무한 면역학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는 단어로 인해 힘든 경우가 많았다. 만약에 이 과목을 독학하거나 강의만 듣고 시험을 봐야 하는 처지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소모임을 통해 교수님과 함께 활동하며 어떤 공부 방식이 더 좋을지 조언을 받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보니 더욱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소모임을 하며 느끼지만, 목표를 크게 잡고 진행하기엔 시간이 짧아 아쉽다. 목표로 하는 부분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보고서를 적는 건 이대로 끝내도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 진행하기로 교수님과 얘기하였다. 이번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 서*원

처음엔 교수님께서 면역학 교재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자고 하셨을 때 교재보단 실험 위주의 공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다. 하지만 면역학 교재 공부를 하면서 방대한 내용의 양을 보고 미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모임 활동을 해보니 교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이 생각보다 커서 그런지 빠르게 면역학 공부에 흥미를 붙였다. 아직 스스로의 기준에 만족할 정도로 잘 해내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3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진 목표한 면역학 챕터까지 완벽하게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명확해져 좋은 시간이었다.

소모임 활동에서 쓰는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스스로의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보고서에서 문장으로 작성하면서 어떤 방식의 공부가 좋을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로운 방식의 공부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추가 모집으로 뒤늦게 들어왔지만, 주어진 시간에 비해 더욱 알차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 홍*서

겨울방학 동안 박규범 교수님의 랩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3학년 전공과목인 면역학과 분자생물학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소모임은 나와 동기가 같이 각 과목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여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잡고 교수님께 테스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화요일에는 면역학 스터디, 목요일에는 분자생물학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면역학 내용이 이전에 배웠던 전공들의 내용에 비하면 매우 어렵고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많아 테스트를 볼 때마다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기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면서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은 멘토-멘티처럼 공부를 진행하면서 해결해 나갔고, 교수님 또는 실험실 선배님께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 어느덧 나 혼자 면역학 figure를 보고 술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되돌아보면서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느껴졌을 뿐 아니라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팀명 : 연구? 우리도 할 수 있어

- 학과: 상담심리학과
- 지도교수: 김*연
- 팀원: 김*림, 이*표, 송*한, 김*수, 김*준, 연*랑, 장*서
- 학습주제: 선행성 기억상실증 학습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2.30. ~ 2023.01.09.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30	22:00 ~ 24:00	ZOOM	선행성 기억상실증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선행성 기억상실증의 양상이나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영화 메멘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가 잠들기 전에 영화를 선정하고 감상 후 발표하였다. 이후 다음 회차에 교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을 토의하였다. (EX-선행성 기억상실증과 역행성 기억상실증 간의 차이, 하위 기억상실증과의 분류 등)
01/03	19:00 ~ 21:00	ZOOM	저번 시간에 발표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님과의 첫 비대면 만남을 가졌다. 교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영화의 내용과 기억상실증의 증상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팀별로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교안을 토대로 기억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다음 회차에,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겪는 이들의 사회적 문제를 조사한 후 발표하기로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01/08	20:00 ~ 22:00	ZOOM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경험할 때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팀별로 조사하고 생각한 바를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인 관계적 문제와 범죄적 측면에 관한 문제를 공통적인 문제로 보았고, 추가적인 사례와 함께 일상적인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직업상의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예시로 들자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추측한 것이다. 이후 다음 회차에서 교

			수님께 어떤 방식으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지 조언을 얻고자 회의를 하였고, 짧게 브리핑하기로 결정했다. 활동 보고서는 서론, 본문, 결론으로 마무리 짓기로 이야기 나눴다.
01/09	10:00 ~ 12:00	ZOOM	<p>마지막 활동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3회차에 계획했던 '발표 브리핑, 최종 보고서(학습 성과물)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 질문, 구성원과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였다.</p> <p>또한 교수님께서 2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기질적 기억상실 중에서도 심리학의 측면에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비서술적 기억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p> <p>이후 영화를 감상한 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학생에게 넘겨 최종적으로 학습 성과물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p>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처음 계획했던 것과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날짜와 시간은 수정되었지만, 이전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으로 영화에 자주 쓰이는 소재라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정한 후 원활한 소모임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감상하고 싶은 영화 3가지를 골라 감상한 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교수님과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약간은 심화한 이론까지 배우고, 사례를 다뤘습니다.

또한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겪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불편함과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수님과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소모임 시간을 가진 후 학습 성과물을 논문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직접 감상한 바로 도출해 낸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성과물은 따로 파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구성원의 소감을 들어봤을 때 모두가 방학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학생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김*림

동계방학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소모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표 학생을 맡게 되었는데, 소모임이라는 작은 조직도 리드하기 힘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 의견 조율 등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대해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선행 연구 자료가 없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구성원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성과물에도 언급했었지만, 선행학습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비록 가벼운 연구였지만 신경 쓸 것이 많아 작은 연구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표**

평소에 관심 있었던 기억상실증에 대해 동계방학 교수-학생 소모임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심층적으로 전공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

방학을 목적 없이 보내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만 소모임을 통해 과 친구들과 만나 같은 주제의 영화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한**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분야 중 아직 배우지 않았던 부분과 이미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공부하는 기회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종강 후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후 학습심리학과 신경심리학 분야를 미리 경험해 본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랑**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기 중이라면 주저했을 소모임 활동도 방학이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전공 교수님과 함께 하여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더 가까워지고, 제 전공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김*준**

방학기간동안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주제인 '기억상실증'을 조사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동을 하며 어려웠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교수님을 통해 채워 나갈 수 있어서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장*서**

관심 갖고 흥미로운 정보에 더 깊게 접근하여 알아보고 조사하니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통한 배움의 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친구들과 교수님께 배우기도 하며 방학동안 보다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팀명 : 미신이들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지도교수: 김*환
- 팀원: 오*혜, 이*영, 박*선
- 학습주제: 2023 미디어 트렌드, 콘텐츠 마케터 글쓰기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12.30. ~ 2023.01.14.
-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2/30	21:10 ~ 22:35	ZOOM	2023 미디어 산업 전망에 대하여
01/06	21:30 ~ 00:00	ZOOM	2023 미디어 트렌드에 대하여, 나의 약점 찾기
01/14	21:30 ~ 23:40	ZOOM	'팔릴 수밖에 없는 글쓰기, 내 가치를 열 배 이상으로 불리는 방법' 강의 감상 후 요약본 발표

○ 활동 소감

▶종합 의견

미디어 산업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교수님께서 밀착 지도를 해주 시니 더욱 좋았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하고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에 선발되어 활동하고 싶다.

▶오*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에는 더 심화한 미디어 산업 트렌드 및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과 동기들의 지식과 느낀 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뜻깊었다. 특히 나에 대한 약점을 다 같이 공유하며 전공에 대한 깊이를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은 학기 중에 보냈던 시간보다 더욱더 값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는 스터디가 될 것 같다.

▶이*영

2023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다 같이 살펴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 글쓰기 강의를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글 쓰는 능력도 향상할 수 있는 스터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좋았다.

▶박*선

2023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해의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유익했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극복해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글쓰기 인강을 듣고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스킬들을 여러 가지 알게 되어서 유익한 스터디였다.

2022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김 억 환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 화 : (031) 850-8949~51

팩 스 : (031) 543-2397

이 메 일 : chactl@chamc.co.kr

홈페이지 : <https://ctl.cha.ac.kr>

인 스 타 : chactl_voice